

# 세계유산 ‘장성 필암서원’ 역사 관광 명소 재탄생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선정

100억 투입 유물전시관 등 공사

디지털 전시·복합문화 공간 단장

유네스코 세계유산 ‘장성 필암서원’이 살아 숨쉬는 역사 관광 명소로 거듭난다.

28일 장성군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후 2시 집성관 1층 강당에서 장성 필암서원의 유물전시관과 집성관이 수선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식을 연다.

장성군은 지난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사업’을 신청해 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유물전시관·집성관 전시 연출 설계 및 제작(2023년) ▲집성관 수선 공사(2024년)를 추진했으며 지난 9월 모든 공사를 완료했다.

새롭게 단장한 유물전시관은 영상·음향·미디어 파사드·이동형 터치스크린 등을 갖춘 디지털 전시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김한중 장성군수가 디지털 전시 공간으로 거듭난 필암서원 유물전시관에서 역사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관람객이 필암서원의 역사와 선비정신을 쉽고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다.

집성관은 교육, 공연, 관람, 체험, 독서가 가능

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내부의 청백리 전시실은 ‘청렴관’으로, 아카데미 자료관은 장성아카데미 30년의 역사를 담은 ‘아카데미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장성군은 재개관식을 계기로 유물전시관과 집성관의 활용을 본격화한다. 첫 행사로 오는 11월1일 필암서원 일원에서 ‘필암서원 선비축제’를 개최한다.

‘하서와 함께 걷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조선시대 성리학자 하서 김인후 선생의 삶과 정신을 조명하며 ▲필암서원 탐색 ▲인문학 토크 ▲선비체험 부스로 구성된다.

‘필암서원 탐색’에서는 전통 선비 복장을 갖춰 입고 서원을 둘러보는 체험이 이뤄지며, ‘인문학 토크’에는 역사 스토리텔러 권김익 강연자로 나서 역사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선비체험 부스’에서는 선비들의 공부법을 체험하고, 조선 인종 임금이 하서 김인후 선생에게 하사한 ‘묵죽도’ 목판을 직접 찍어보는 체험도 진행된다.

이 밖에도 축제 이후인 11월13~14일 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11월 말에는 필암서원 산악회 주관 학술대회를 열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유물전시관·집성관 재개관을 계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유하겠다”며 “군민과 관광객, 외국인 모두가 즐겨 찾는 살아 숨쉬는 역사 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 서영배 광양시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

5분 자유발언서 필요성 강조

광양시의회 서영배(더불어민주당·옥곡·사진) 의원은 제3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시범사업에 맞춘 광양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28일 “농어촌은 여전히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농업 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농촌 주민의 기본 생



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광양시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 증가 도시지만 미래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2026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광양시도 참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양시도 비교 검증 대상에 포함돼야 하며 인구 규모별로 기본소득의 효과를 분석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을 막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광양시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농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선도 도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양=양홍렬 기자



고흥군은 지난 27일 어항 기능 복원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고흥군 제공〉

## 고흥군 대서면 신기·송림항 어항 기능 복원

148억 투입 어촌뉴딜 300사업 마무리

방파제 신축·선착장 증설·작업장 등 조성

고흥군이 어항 기능 복원과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28일 고흥군에 따르면 전날 열린 ‘대서면 신기·송림항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식에는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군의원, 마을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기·송림항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신기·송림항은 지난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총사업비 148억원(국비 70%·도비 9%·군비 21%)을 투입해 2년에 걸쳐 다양한 기반시설을 조성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방파제 신축 ▲선착장 연장 및 증설 ▲공동작업장과 다목적창고 신축 ▲방문자센터 증축 ▲장사·송림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각종 공사가 올해 9월 완료됐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 준공으로 어항의 기능을 복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기·송림항이 어촌뉴딜 300사업의 추진 목표인 ‘어촌·어항 통합재생’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영민 군수는 “신기·송림항에 새롭게 조성된 기반시설과 주변 연계시설을 잘 활용한다면 어촌공동체가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소득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 여수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내달 17~26일까지...230세대

문수·미평·여천부선 3개 단지

여수시는 28일 “다음 달 17~26일까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230세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단지는 ▲여수문수110세대(1·2순위) ▲여수미평1단지 40세대(1순위) ▲여천부선1단

지80세대(1·2순위) 등 총 3개 단지이며, 공급형별로는 전용 26.37㎡(12평형)와 31.32㎡(13평형) 두 가지 유형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10월27일) 기준 여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등록장애인으로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등이다.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로만 가능하며 최종 입주대상자는 2026년 4월28일 LH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

## 곡성군 모바일 심청상품권 최대 20% 할인

곡성군은 28일 “다음 달 9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동안 모바일 심청상품권 5% 추가 캐시백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마련한 전국 규모의 할인 행사로 다양한 분야에서 풍성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모바일 심청상품권 이용자는

기존 10% 선할인 혜택에 더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중인 5% 캐시백과 이번 특별 이벤트로 추가 5%를 더 받아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동안 모바일 심청상품권의 높은 할인 혜택을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누리고 지역 소비가 한층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 담양군 내달 18일까지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12개 읍·면서 표본조사

담양군은 28일 “다음 달 18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가구의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진행되는 국가 지령 통계조사로, 5년마다 실시되는 대규모 인구·주거 실태 조사다.

담양군은 조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2개 읍면에 총 41명의 통계조사요원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군은 조사 품질 향상을 위해 최근 군청 면양정실에서 조사요원 41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을 진행해 조사방법, 응답 요령, 개인정보 보호 등 현장 실무교육을 추진했다.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는 모바일, PC, 전화로 참여할 수 있으며 비대면 참여가 어려운 가구는 11월1일부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향후 지역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국가조사”라며 “가구를 방문하는 조사원은 담양군이 직접 교육하고 발급한 통계조사원 완장을 소지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화순군이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마을회관 일대에서 산불예방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순군 제공〉

## 화순군,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대책본부 운영·순찰 강화

화순군은 28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10월20일~12월15일)에 맞춰 산불 발생 대비 및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산불방지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산불재난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 근무반을 편성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가을철은 평년과 비슷한 기상 여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단풍철 산행 인구 증가와 입산물 채취, 농산 부산

물 소각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산불 예방 중심의 선제 대응에 나선다.

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0명을 선발 완료했으며 29일부터 본격 투입해 ▲논·밭두렁 소각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입산 통제구역 출입 금지 등을 중점 점검하며 관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선균 화순군 산림과장은 “가을철은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며 “예찰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